

LG전자 “전기차 충전기 생산라인 연내 구축”

GS 계열사와 손잡고 ‘애플망고’ 인수 지분 60% 확보, 자회사로 편입 앞뒤 그룹 내 배터리 사업과 시너지 기대 세계 충전시장 2030년 410조원 관측

LG전자가 미래전략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이를 위해 GS 계열사와 함께 국내 유망 전기차 충전기 전문업체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이로써 ▲VS사업본부(인포테인먼트) ▲ZKW(램프)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전기차 파워트레인) 등 전장 사업에 더해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까지 진출하며 미래 전기차 시대에 최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 등 그룹 내 배터리 사업과도 시너지가 기대된다.

●GS 계열사와 협력...애플망고 인수

LG전자는 최근 GS에너지, GS네오텍과 공동으로 전기차 충전기 전문업체 애플망고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애플망고는 그 중 60%의 지분을 확보하는 LG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GS에너지와 GS네오텍은 각각 34%와 6%의 지분을 취득한다.

2019년 설립된 애플망고는 완속부터 급속까지 가정은 물론 상업용 공간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전기차 충전기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과 설치 편의성을 높여주는 슬림형 급속 충전기 설계에 필요한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LG전자는 연내 경기도 평택 LG디지털파크에 전기차 충전기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가정과 쇼핑몰, 호텔,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



LG전자가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2'에서 선보인 전기차 충전기.

사진제공 | LG전자

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충전소 운영 노하우와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고 있는 GS 계열사와 공동 인수를 통해 솔루션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게 됐다.

GS에너지는 충전기 제조부터 충전소 운영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하며 전기차 충전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GS에너지는 지난해 국내 충전사업자 지엔텔과 함께 합작법인 지커넥트를 출범하는 등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을 확대해가고 있다.

●미래먹거리로 육성

LG전자는 애플망고 인수를 기점으로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방침이다. 그동안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축적해온 충전 관리 기술에 더해 충전기 개발 역량까지 확보하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 공급업체로 발돋움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2018년 CTO(최고기술책임자) 부문에서 전기차 충전 솔루션 섹터 개발을 시작했다. 2020년에는 GS칼텍스가 서울 서초구에 오픈한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허브에 전기차 충전 통합 관리 솔루션을 공급한 바 있으며, 이후 B2B(기업간거래) 사업을 담당하는 BS사업본부에서 본격적으로 사업화 준비를 해왔다.

LG전자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은 물론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 솔루션 비전(B

ECON) 등 에너지 사업에서 확보하고 있는 전력관리 및 방열기술을 접목해 차별화된 충전 솔루션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백기문 LG전자 전무는 “빠른 성장에 예상되는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B2B 사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차 수요 확대에 따라 전기차 충전 시장은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업계는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이 내년 550억 달러(약 70조 원)에서 오는 2030년 3250억 달러(약 41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상징하는 키워드를 선보이고 있는 LG유플러스 직원들. 사진제공 | LG유플러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 LGU+,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LG유플러스는 24일 ESG위원회 회의를 열고,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다. 먼저 국제협약체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약 53%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중간목표를 세웠다. 최종적으로는 2050년 기준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의 25%를 자체 감축하고, 나머지 75%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를 위해 광동축융합망(HFC)을 평가 입자망(FTTH)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HFC는 광케이블과 동축케이블을 함께 사용하는 유선 가입자망이다. FTTH는 광케이블만을 사용한다. 별도의 전력소모가 없는 FTTH와 달리 HFC에선 전원공급기와 증폭기가 필요해 에너지 소모량이 많다.

LG유플러스는 또 동절기 외기온 에어컨을 대체하는 외기냉방장치 설치 확대 등 국사와 IDC(인터넷데이터센터) 냉방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한 국형 RE100(K-RE100)에도 가입할 예정이다. K-RE100은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구매계약,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분투자, 자가발전 등을 통해 전력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줄이자는 캠페인이다. 현재 국내 64개 기업이 K-RE100을 선언했다.

김명근 기자

KT, 심야·새벽 시간대 자율주행 셔틀 공급 나선다

안양 버스기업 등과 전략적 MOU
시범사업 시나리오 설계 등 추진

KT는 경기도 안양시 시내버스 기업 삼영·보영운수,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자율주행 사업분야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사는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시나리오 설계 및 운영기술 컨설팅 ▲자율주행 버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기술 컨설팅 ▲자율주행 노선버스 설계 자문 및 위탁 운영을 위한 교육 이수 등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야·새벽 시간대나 대중교통 사각지역에 자율주행 셔틀을 공급하고, 시민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스마트 교통도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미래 자율주행 서비스와도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KT는 5G·LTE 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제공하고 고정밀측위(RTK), 정밀지도(L

DM) 등 자율협력주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플랫폼에 접목한다.

삼영·보영운수는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 도시 실증과 운영 역량 축적을 통한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 및 기존 운수 서비스업과의 상생을 모색한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지정노선 기반 자율주행 버스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선제적 기술 실증과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김현호 KT 강남서부광역본부 상무는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 도시 실증



자율주행 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김현호 KT 강남서부광역본부 상무, 신보영 삼영·보영운수 대표,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왼쪽부터) 사진제공 | KT

을 위해 지자체별 운수 서비스업과 발전적인 상생협력을 하겠다”며 “이를 통해 스마트 교통도시를 구현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일상도감’ 캠페인 시작

삼성전자는 개인 맞춤형 멀티 디바이스 경험을 제안하는 ‘스마트싱스 일상도감’ 캠페인을 시작했다. 스마트싱스는 삼성전자 제품·서비스는 물론 외부 기기 연결까지 포함해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하는 기기 연결 경험을 통칭한다. 삼성전자는 기술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에 한정됐던 스마트싱스의 개념을 다양한 기기를 연결하는 고객경험 전반으로 확장해 일상 속 스마트싱스 활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27일 (월) 음력: 5월 29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남				
 말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은 좋아보여도 내면적으로는 허접이 있으며 무슨 일이나 분명치 않아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이다. 사업의 시작단계이므로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낮은 자세로 임하라.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고 감응하는 운기이다. 이성을 만나면 길하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먼 곳과의 거래가 성사되고, 자격시험 합격, 신용의 증대가 예상된다. 해외여행의 찬스, 해외무역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겠다.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지출이 많을 때이니 되도록이면 저축에 힘써라. 너무 밀고 나가면 상대가 주춤하고 멈춘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생각하라.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력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다려야 한다. 서류는 잘 확인하고 대인관계에 신경 쓰라.			
냉혹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선배의 의견을 따르면 매사 마음먹은 대로 잘 될 것이다.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기회이다.				음주 가부로 흥겨운 반면 고생이 따르겠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수입이 많아지나 지출도 많이 따르겠다. 지나친 향락으로 방탕하기 쉬워지며 쓸데없는 다름이나 금전 낭비, 애정의 실패, 이성관계의 문제 등이 일어날기 쉽다.			
힘이 넘치는 기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왕성한 의욕을 억제하여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움직이는 날이다.				대체로 좋은 위치에 있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 수가 많다. 따라서 애매한 전망으로 일을 시작하다보면 반드시 중도에 좌절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앞날은 밝아질 것이다.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의 날씨			27일(월)		
서울	60/60	인천	60/60	춘천	70/80
강릉	30/30	대전	30/60	전주	30/60
광주	60/60	대구	60/60	부산	60/60
창원	60/60	제주	60/6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53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영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건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